

다산포럼

화살표 방향과 착시현상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같은 길이의 두 개의 선분에 화살표를 표시하게 되면 바깥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가리키는 선분이 안쪽으로 화살표가 그려진 선분보다 훨씬 길게 느껴진다. 이처럼 객관적 현실과 다르게 우리 눈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을 착시현상이라고 한다.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착시현상이 많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문제와 도시 슬럼화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운동은 미국 사회 내에 인종과 빈부격차로 미국국민 모두가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존슨 대통령은 진보적인 방향에서 미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운동을 전개했다. 대표적 정책 중

의 하나가 유치원을 공공교육화시킨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백인 아이들의 학력이 흑인 아이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많은 백인 아이들은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학력의 격차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존슨 대통령은 유치원부터 고령적인 문제는 유치원 교육이 아니라 흑인 아이들의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백인가정에 비해 흑인가정은 자녀도 많고,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돌볼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난 사교육을 받으며 자란다. 심지어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영아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믿는 부모들이 많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극기훈련을 하듯 공부를 한다.

잘 정리된 내용과 시험 푸는 요령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서 나중에 성공한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이것은 착시현상이다. 21세기는 20세기와 달리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20세기기는 대량생산체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관료조직이 효율성이 높았다. 이런 조직에서는 한 가지 전문성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21세기는 전혀 다르다. 인내심 많고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시대는 끝났다. 유학시절 초기에 세미나에서 다른 미국 친구들처럼 토론을 잘 못하는 이유가 영어와 전공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밤을 새워 책을 읽고 가도 토론에 끼여들기 어려웠다. 교수는 토론에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공부를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잠을 줄이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외우고 또 외워서 시험을 잘 보면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명칭만 친구로 취급 받는다. 사실 공부는 노동이 아니라 호기심이다.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공부에서 성공할 수 없다. 사교육을 받는 것은 단기적으로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극약처방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초체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게 만든다. 뛰어난 성적으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한 특목고 출신들이 중도에서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더 깊이 있는 학문에 빠져들기보다 스펙을 쌓고 학점을 잘 관리하면 좋은 직장을 얻어 성공한다는 착시현상에 빠져있다. 단기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50대 초반에 은퇴를 강요되기 때문이다. 지적 호기심을 갖고,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이 스펙이나 학점보다 더 중요하다. 초·중·고에서도 자신이 흥미를 갖고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는데 꼭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이런 사교육의 착시현상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이 커서 자녀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젊은 부모들이 많은 현실이 안타깝다.

社說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안된다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에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대학 이전 허용 등 민간투자 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규제 완화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한다. 특히 경제5단체 등에서 그동안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수도권경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완화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관련법은 이명박 정권에

수도 수차례 수정하려 했다가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 정부가 이를 다시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 죽이기' 나팔을 부았다. 기업들이 대량 유치되어 자립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하지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겠는가. 경제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우 기존 공장이나 내려를 계획으로 있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틈타 수도권으로 '인턴'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국 광역단체장과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 구성민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당 협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완화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수도권 규제 관련법은 이명박 정권에

불 끄려는 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야

화재는 일순간에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재해로 아무리 예방에 힘써도 큰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소방당국이 항상 진화장비를 갖추고, 전문인력을 훈련시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지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화재 발생시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안은 소방차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불을 끄는 것이다. 그러나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대형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박덕홍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불이 나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54개 구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17개 구간 2km와 전남 37개 구간 12.7km에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8곳으로 가장 많고, 남구 5곳, 서구는 3곳 등이다. 전남에서는 목포 등 일부 도시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고지대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들 지역은 상당수 구간이 주거지역인데, 시장 등 상가지역도 적지 않아 자칫 화재 진압이 늦어질 경우 대형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국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는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초기 화재 진압 실패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방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화재시 피해 확대가 되지 않도록 문제지역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길을 넓혀야 한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지역 주변의 도로사정을 파악해 소방차 진입이 가능토록 함시 조치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가나 주택가의 불법주정차 등 소방차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법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함은 물론이다. 화재 발생 후 허둥대다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대처다.

교통칼럼

‘느림의 미학’ 실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정은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

광주·전남지역은 '느림의 미학'이 있는 관광지다. 그 중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 증도는 매력적인 풍경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일상에서의 탈출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좋은 선택이다. 봄의 기운이 감도는 요즘, 증도의 들장과 바다는 조용함과 '느림의 미학'을 우리에게 선사하며, 우리는 이러한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곤 한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무엇보다

빨리빨리 라는 습관과 문화에 취해 살아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와 습관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에서는 한 박자 쉬어가는 '느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운전에서 속도와 빠름만을 추구하다 보면 여유가 사라지고 조금의 앞서게 되며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바빠지면 안전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소득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아직도 OECD 가입국 중 1~2를 다투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수준에 맞는 교통문화가 필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 운전에서 앞섰을 때 목격자에 빨리 도달하려는 욕망을 버리고 한 박자 쉬어 간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긴장감도 해소돼 안전이라는 여유로움을 찾게 될 것이다.

여유와 느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뒀을 느낄 것이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교통환경을 바꾸게 될 것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통문화에서 '느림의 미학'이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일 것이고,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느림의 미학'의 실천으로 지켜줘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시 벌칙이 일반도로의 두 배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초등학생 교통사고는 저학년의 교통사고 피해가 크며,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사망자가 2/3를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게 올바른 보행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운전자 역시 초등학교, 학원이, 놀이

터 주변에서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런 운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통학버스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통학버스 운전자, 운전자, 인솔자가 어린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인솔교사 탑승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해 요구된다. 손차별법에 가까운 길이라도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우직지계'의 말이 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파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 빨리 가려고만 하다가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돌이킬 줄 아는 운전을 할 때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우리의 교통 환경은 한층 나아질 것이다. 이제 '우직지계', '느림의 미학'을 마음에 품고 실천하는 성숙된 의식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때이다.

음부즈맨 칼럼

신뢰성과 신선함 가득한 지역신문이 되길



김준연 광주은행 사회공헌사무국 본부장

필자의 아침은 30여개의 일간지들을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1991년 조사부 근무시 절부터 필자에게 신문이란 별책이 될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특히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신문들은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들을 잘 빠르게 제공해 항상 기대 이상의 유익을 준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날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없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신문들이 독자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현재의 신문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른 영향력의 위기, 존립의 위기

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이신문의 구독률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인구의 10% 정도 만이 신문을 구독한다고 하며 그마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종이신문은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경쟁논리에 밀리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지역신문들이 종이 가진 경쟁력을 잘 살려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뉴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그 신뢰성에서 나온다. 인터넷은 그 신속함과 전파력이 매우 강하지만, 신뢰감은 우리에게 친숙한 신문지면의 잘 정리된 기사에서 더 크게 느끼게 마련이다. 신문 지면의 기사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기사에 눈길기 머물기 마련이고, 한번 눈이 멈추면 정독을 하며 그 내용을 꼼꼼히 본다. 이처럼 종이신문 속의 기사는 많은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준다. 앞으로도 지역신문들이 오랫동안 구축한 인적·물적 시스템과 여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기사들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신문이

되었다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신문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수단인 아닌 지역민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의 중앙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언론의 존재감은 더욱 약해지는 듯하다. 하지만 지역민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신문이다. 중앙지는 각 지역의 문제점들을 신문의 후반부에 작게 배치하게 되지만 지역 신문들은 1면 톱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소통을 통해 지역민들의 바람을 알아내고 이를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지역 신문이 존재하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최근 개강한 '광주 일본 리더스아카데미'가 언론과 지역민들의 참 좋은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리더스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강의를 물론 지역사회 주요 과제와 지역의 리더들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다. 더불어 리더스아카데미의 주요내용들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 이는 또 하나의 언론과 지역민심의 소통의 창

구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에 한가지 더 바라는 점은 변화와 혁신,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신선함이다. 63세의 국민가수, 가왕 조용필은 10년 만에 '바운스'라는 신곡을 발표했다. 그 신선함이 어찌나 좋은 지 전 국민이 난리다. 비단 50~60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게도 큰 반응은 뜨겁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 맘대로 부르며 좋아하는 걸 보니 새삼 노래 하나로 세대 통합을 이뤄낸 조용필이 더욱 대단해 보인다. 이처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신선함으로 직장인, 학부모, 청소년 등 폭넓은 독자층에게 두루두루 사랑받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지난 4월 7일은 제 57회 '신문의 날'이었다. 1896년 4월 7일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일에 맞춰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 긴 역사, 창립 61주년을 맞은 광주일보도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로 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선한 볼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 본다.

無 等 鼓

지난 1996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3호분을 발굴하자 무려 41기나 되는 다양한 무덤이 나왔다. 연구 결과, 동일집단이 옹관묘, 초기 황철식 석실분, 백제 석실분으로 이어지는 무덤을 3세기부터 7세기까지 400여년에 걸쳐 구축한 것으로 밝혀져 '야파트 고분'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후부가 선전의 묘 자리를 옮겼다는 내용의 가십기사에도 익숙해질 정도다. 하지만 명절 때 성묘에 나선 이라면 묘 주변을 멍때리지 해지고, 대형 때문에 봉분이 무너져 내린 경우를 많이 접했을 것이다. 더욱이 가족묘를 조성할 과정에서 타인의 묘를 자신의 조상묘로 착각하고 파헤치는 바람에 법적 분쟁에 들어간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콘크리트 봉분



최근 고흥군 과역면 한 마을에 묘지 전체를 회색 시멘트토 덮어버린 콘크리트 묘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멍때리지 묘를 파헤치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로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280km로 전국 함계... 확장시절 거듭 알기하면 삼국시대 대표적 무덤양식 내용이다. 이처럼 나라와 시대마다 묘제가 다른 것은 그들만이 갖는 전통 양식과 특수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古來)로 비단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도 이르까지 풍수지리설에 따라 좋은 묘지리를 잡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고흥군 과역면 한 마을에 묘지 전체를 회색 시멘트토 덮어버린 콘크리트 묘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멍때리지 묘를 파헤치고,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로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 280km로 전국 함계... 확장시절 거듭 알기하면 삼국시대 대표적 무덤양식 내용이다. 이처럼 나라와 시대마다 묘제가 다른 것은 그들만이 갖는 전통 양식과 특수성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래(古來)로 비단 왕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도 이르까지 풍수지리설에 따라 좋은 묘지리를 잡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악동뮤지션’ 남매가 보여준 교육법 배우자

K팝스타2 경연이 8개월의 대장정 끝에 악동뮤지션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관심이 온통 K팝이나 가요에 쏠린 현상이 너무나 큰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 된다. 유능한 인재들이 여러 분야에 고르게 관심을 갖고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경연은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우승은 더 값지고 빛나 보인다.

악동뮤지션 남매는 정규 음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아니 음악교육뿐 아니라 부모 따라 이민 가 5년 동안에도 학교에 다닌 적이 별로 없다고 한다. 단지 집에서 부모로부터 흠스쿨링을 받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 셈이다.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서라고 한다. 이쯤에서 상상이 안 되는 것은 이런 불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승이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훌륭한 재능과 뛰어난 실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하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며 사교육에 내몰리느라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야말로 전쟁터 같은 일상이 아닌가. 내가 궁금한 것은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민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우승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뉴턴은 강남에서 최고 잘나가는 학원강사, 아인슈타인은 중국집 음식배달원, 에디슨은 보따리장사, 퀴리부인은 불계공장에서 미싱사가 될 거라 예측한다. 물론 이런 일들이 좋지 않은 직업이라는 뜻은 아니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동생 이양이 하는 말이 감명을 준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꾸미지 않고 자연스런 모습을 좋아해 주는 것 같다.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부모님 말쑥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에 맞는 경험을 하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며 노래만 하는 그런 아이로 기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인위적인 환경보다는 자연스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다. 아름다움은 억지 꾸미거나 기교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에서 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강진행·광주시 북구 운암동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publication detail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